

2025년 1호

장애인 재난안전가이드 카드뉴스

# 폭염·태풍 대비

- 본 자료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재난안전가이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-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면 재난안전가이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
- 본 자료는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([www.koddi.or.kr](http://www.koddi.or.kr)) 및 카카오톡 채널(챗코디 with 한국장애인개발원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독자 의견은 정책연구팀 이메일([parkjin4844@koddi.or.kr](mailto:parkjin4844@koddi.or.kr))로 보내주십시오.
-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있습니다. COPYRIGHT (C)KODDI ALL RIGHTS RESERVED
- 기획·분석: 조운화, 이미선, 박진



## 1. 폭염

# 폭염이란?

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한 더위로,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30℃ 이상의 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을 말합니다.

## 폭염으로 인한 건강 문제



피부 화상



열사병



열탈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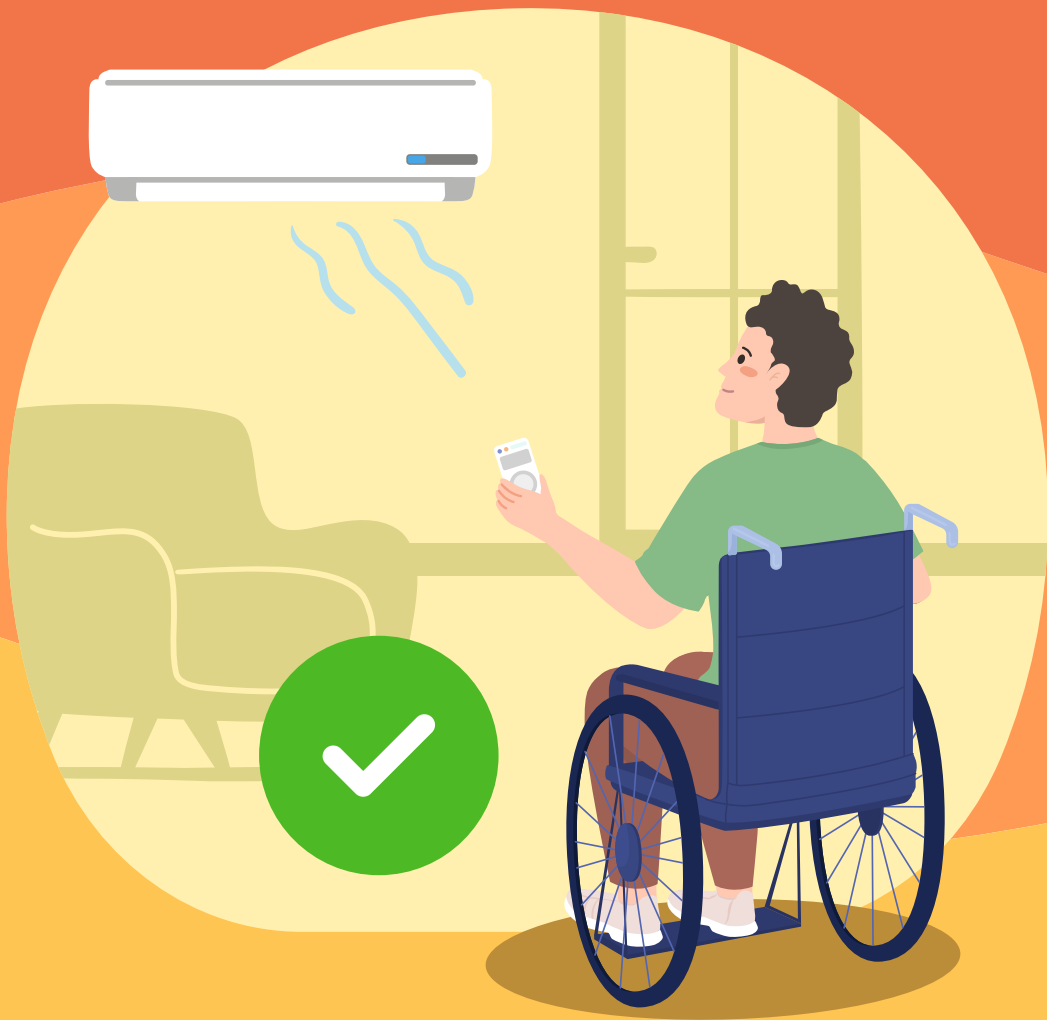
열경련



열피로

## 1. 폭염

# 폭염 대비



선풍기, 에어컨 등  
냉방기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 
사용법을 알아둡니다.

정전에 대비해  
손전등, 비상 식음료, 부채 등을  
미리 준비합니다.

지원자(가족, 활동지원사)의 부재 시 냉방기기  
이용을 위해 리모컨을 사용이 용이한 자리에 보관합니다.

보조기기를 사용한다면 여분용 배터리를 구비하고,  
보조기기 관련 장비 점검을 하여  
비상상황에 대비합니다. (상시 복용하는 약 구비)

## 1. 폭염

# 폭염 시 대응



물을 많이 마시고,  
커피나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.



오후 12시에서 4시 사이  
야외활동을 줄입니다.



몸에 붙지 않는  
시원한 옷을 입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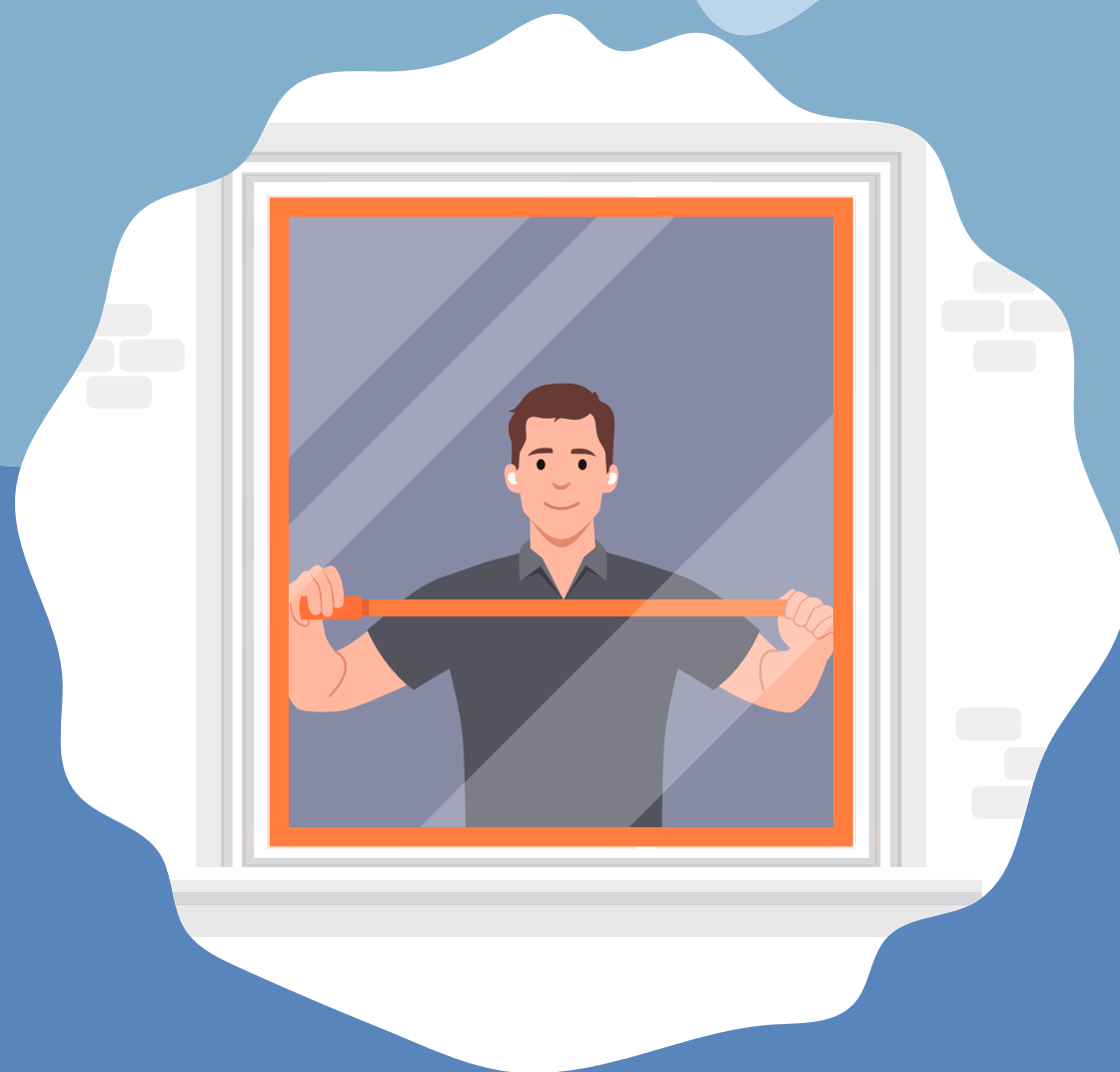
탈수, 메스꺼움 등의 증세가 없는지  
자주 확인합니다.

## 2. 태풍

# 태풍 대비



응급약품, 손전등,  
비상식량 등을 준비합니다.



창문을 완전히 닫고,  
창문과 창틀 사이에  
테이프를 ‘ㄱ’자로 붙입니다.

보조기기를 사용한다면 여분용 배터리를 구비하고,  
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기의 장비를 점검하여  
비상상황에 대비합니다. (상시 복용하는 약 구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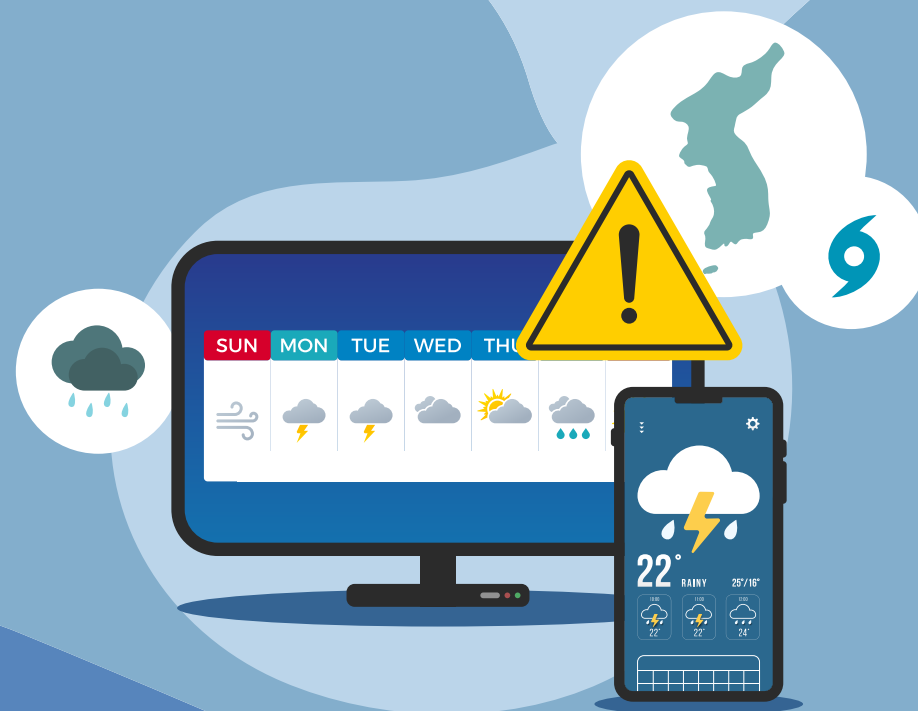
태풍 발생 시 비상상황에 대비해  
가족, 이웃, 활동지원사, 지역복지관 등과의  
연락 체계를 확보합니다.

## 2. 태풍

# 태풍 시 대응



집 안의 창문과 출입문이  
잘 잠겨 있는지 확인합니다.



TV, 스마트폰, 라디오를 통해  
기상 예보 및 태풍 상황을 자주 확인합니다.



반지하 및 지하공간 침수 시  
119, 주민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 
구조요청을 합니다.



저지대, 상습 침수 지역에 거주한다면  
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.

# 장애유형별 재난 대피 요령



## 폭염

- 땀 분비가 어려운 경우 열이 체내에 쌓일 수 있으니, 통풍이 잘되고 땀 흡수가 좋은 면 소재 옷을 착용하는 등 욕창 관리에 주의합니다.
- 외출 시 모자나 양산 등을 활용해 직사광선을 피합니다.
- 지원자(가족, 활동지원사 등)는 장기간 외출 시 규칙적으로 휴식 장소를 이용하고, 주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합니다.

## 태풍

- 태풍 시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, 외부 활동 시에는 강풍으로 인한 휠체어 전복 위험에 주의합니다.
- 우비, 방수천, 휠체어 커버 등 방수용품을 준비하고 전동 및 수동 휠체어를 점검합니다.



## 폭염

- 외출 시 강한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선글라스, 챙이 있는 모자 등을 착용합니다.

## 태풍

- 독립보행을 하는 경우 빗물에 의한 바닥 물기, 기타 기타 장애물(나뭇가지 등)을 흰지팡이로 확인하면서 이동합니다.
- 지원자(가족, 활동지원사 등)와 함께 이동 시 서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.
- 흰지팡이를 사용하는 경우 작은 우산은 뒤집어질 우려가 있으니, 강한 바람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장우산을 사용합니다.



## 폭염 및 태풍

- 폭염 및 태풍 경보를 못 들을 수 있으니, KBS(재난방송), 휴대폰 재난알림 등을 켜둡니다.
-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챙겨둡니다.
-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용 습기 제거제, 전자 제습기 등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보청기 관리를 해줍니다.

\*KBS는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제40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